

광주 고용률 석달만에 하락세 전환

광주 4월 고용률 58.9%...전남은 소폭 상승 63.0%
도소매·건설업 불황 취업자수 전년동월보다 1만명 ↓

광주 고용률이 석 달 만에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도소매·건설업 등의 불황으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만명 떨어졌다. 전남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업률 역시 소폭 올랐다.

◇도소매·전기·운수업 취업자 ↓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달 광주·전남 고용률은 각각 58.9%·63.0%를 기록했다. 광주 고용률은 지난 1~3월(58.1%→58.2%→59.2%) 소폭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 달 58.9%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취업자는 7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명이나 줄어 들었다. 취업자 수 감소에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6%), 도소매·숙박·음식점업(-4.2%), 건설업(-

6.8%) 고용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월보다 6.2%(1만9000명) 늘었다.

광주지역 실업자 수는 3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4%(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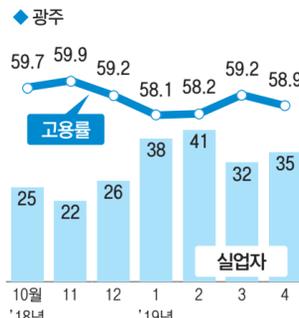
전남 고용률은 63.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9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3만3000명이 취업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10.7%)을 보였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4.2%), 농업업(-3.4%) 등의 취업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남 실업자는 3만3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많아졌고 실업률은 3.3%로 0.1%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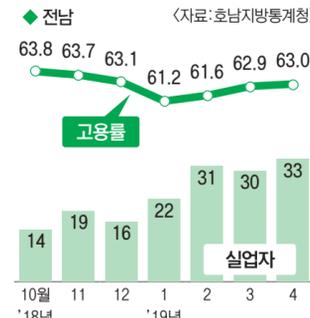
◇30~40대 취업 줄고 시간제 늘고

■ 광주·전남 고용률·실업자 수 추이



경제활동인구의 핵심 연령층인 30~40대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광주 30대 취업자는 15만4000명, 40대 1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000명, 2000명 줄어들었다. 전남 40대 취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5000명 감소한 20만4000명이었다. 30대 취업은 1000명 늘어난 15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달 고용동향 특징 중 하나는 시간제

〈단위: %, 천명〉
〈자료: 호남지방통계청〉



취업자는 늘고, 전일제 취업자는 준 것이다. 광주지역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00명(3.4%) 증가한 13만2000명이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4000명(-2.2%) 감소한 60만2000명이다. 전남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000명(4.2%) 증가한 19만5000명이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명(-1.3%) 감소한 76만3000명이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2.78 (+10.94) 금리(국고채 3년) 1.71 (0.00)
 ↑ 코스닥 729.60 (+19.44) ↓ 환율(USD) 1188.60 (-0.80)

LH, 빛그린산단 단독주택용지 45필지 공급

28~29일 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45필지(1만4000㎡)를 오는 28일 입찰방식으로 신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설 장소다. 입찰 대상 토지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이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시와 영광을 연결하는 국도 22호선과 연결하고, 서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남쪽으로 무안-광주고속도로가 있어 광역접근 여건이 양호하다. 광주공항과는 15km, 무안국제공항과는 31km, 호남선 광주송정역과는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산단 중앙, 완성차 공장 부지 바로 인근인 합평1구역에 위치하고, 평균 예정 공급가는 ㎡당 약 21만4000원이다. 산단 내 별도의 공동주택용지가 없어 완성차 공장 등 산단 근로자의 주거단지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입찰신청은 28~29일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62-360-3174.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색

중기중앙회 상반기 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5일 오전 광주시, 한국산학협력동연원과 함께 '2019년 상반기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동반성장 포럼'은 광주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학협력동연원 공동 주최로 매년 상·하반기 열고 있다. 이날 김지숙 광주지방조달청장,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경광 주시기업육성과장,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강연·토론 등이 진행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23개사 선정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헤드라인 등 총 23개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은 수출통관의 필수요건일 뿐 아니라 수출제품의 품질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선정된 업체들은 유럽공동체마크(CE), 미국국가인정시험마크(NRTL) 등 총 393개 해외인증을 진행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최대 1억원까지 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인증획득을 진행한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오는 6월3~28일 중소기업 수출지원 포털(exportcenter.go.kr)을 통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5·18 묘역에서 헌화 분향하며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임직원, 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 임직원들은 15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민주·자유·인권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5·18 영령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뜨거운 함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지역민과 상생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하반기 흑자 전환...사원 협조 절실"

지난달 국내시장 20억 흑자
경영정상화 설명 기자간담회
금호타이어가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면 오는 2021년부터 광주공장을 연차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영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지난달 20억원 국내시장 흑자에 이어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노사 관계가 변수다. 회사 측은

그러나 영업망 붕괴에 따른 오더 부족, 공장 가동을 저하, 글로벌 시장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간 손익의 적자, 2017·2018년 영업이익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가동률이 62%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생산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생산 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지난달 2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2021년 마스터플

랜이 나오면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빛그린산단은 후보지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이전 청사진과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노사 관계다. 지난 3월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자기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조기 선거에 들어갔고, 오는 17일 선거를 치른다. 노조 내 4개 사조직(민노회, 노동희망, 민사회, 현장의힘)에서 각각 후보를 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77
창사 77주년

2019. 4.18 목 - **5.28** 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제 64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이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청: 미술·작문 부문 2019. 5. 13(월) - 5. 15(수)

참여자: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8일(목)~5월 28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사 10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9년 4월 15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상: 우수학교상 개인 및 단체: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